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 숭의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춘향’ 이 파리서 얻은 것

세계정상급 오페라단이 한번쯤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우리 공연시장은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관객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페라단의 해외방문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지원정책의 폐쇄성과 세계 공연시장에서 프로모터할 전문가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최근 글로리아 오페라단(단장 양수화)은 문화의 본 고장인 파리 시내 모가도르 극장에서 오페라 ‘춘향전’ 을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외적으로는 고속철도 개통 기념과 한 · 프랑스 친선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열렸지만 한국교포, 파리시민을 비롯하여 양국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여 한국 오페라의 수준을 과시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몇 해 전 프랑스 아비뇽축제 사무국에서 한국의 공연문화를 소개하려고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국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의 주선과 추천으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공연작품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공연예술이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에 소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결국 선택된 것은 판소리였고, 사물놀이가 곁다리로 끼는 정도였다.

오랜 시간 우리의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수없이 많은 논의와 정책이 있어왔고 지원 또한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세계적 문화축제에 내놓을 만한 한국적 국가 이미지를 담은 예술 작품이 없다니….

21세기에서는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가 정치나 경제 등 인간 삶의 중요한 영역 속에 개입하여 규정력을 갖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문화가 이미 인간의 총체적 삶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으로 실존하고 있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자할 때 시민들의 요구와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작금의 시민들의 문화수요는 점차 개성화하고 다양화하여 또한 좀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예술을 소비하는 소극적인 향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교양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혁신과 개혁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 특히 공공 및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의 우리 공연예술은 강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창조적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의 정체성 있는 소재 발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가 육성을 통해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미지의 세계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이번 ‘춘향전’ 공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유명 오페라단이라는 브랜드에 의존한 무분별한 초청공연을 지양하고 새로운 창작 오페라의 소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해외 유명작품에 의존한 기존 풍토는 한정된 소재 그리고 반복되는 공연 등으로 곧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페라 예술이 문화산업의 주류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산가치를 가진 콘텐츠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춘향전’ 파리공연의 호평은 오페라 산업 발전에 큰 자극과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사와 환경도 ‘不二’ 다

한국사회에서 불교계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지도적 위치를 지닐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그것들 가운데 문화와 환경 영역이 빠질 수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오랜동안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온 역사와 현실이 있으며, 또한 민족 문화의 보고로서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존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역할에서 축적된 경험과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대승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훌륭한 미래의 환경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지혜를 발휘해 내야 할 사명 또한 지니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불교계의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위상을 쌓아왔다. 경주고속철통과 반대운동이라든가 천성산 관통 반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 촉구 운동 등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불교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알려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계에서 시도하는 불사들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환경파괴, 문화 파괴로 호된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불교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의 권위와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해인사의 경우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해인사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과연 그 원만한 추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다. 왜 미리 철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진화작업의 성격이 짙은 미봉책이 제시되는가?

한번 떨어진 신뢰는 몇 배의 힘을 들여도 회복하기 힘들다. 해인사의 경우도 그 불사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다. 불교를 넘어서 전 국민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걸맞는 장기적인 개발과 보존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일들을 교훈삼아 범종단적으로 각 사찰 단위에서 즉흥적으로 문화와 환경을 깨뜨리는 불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 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와 환경 영역에 대한 앞서나가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진정한 유산

선남자여, 그대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부모권속을 보살피려 한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라 하는가? 선남자가 집에서 살 때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 할 때 같이 괴로워하기 때문이니라.

〈잡아함경〉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효자’ 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자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를 찾아 온 자식들은 돌아가는 길에 중개업소에 들러 개발 현황 및 땅값 추세를 알아본다.

이런 현상은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과 LCD공장이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시, 판교신도시, 아산신도시 등 개발지역 주변부에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서 최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대접이 부모가 가진 부동산과 비례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식보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도 세속적인 이익과 계산이 우선한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행복한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가 열두 살이 되던 어느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하고 당돌한 요구를 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라훌라의 손목을 이끌고 니그로다 정사로 가서 제자인 사리푸타에게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하고 이르셨다. 부처님의 유산은 법이었던 것이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체불명 종단 단속할 수 없나

정해놓고 다니는 사찰을 두지 않아 이 곳 저곳을 다니고 있다. 특별히 종단을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찰이 어떤 종단인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전 찾아간 안산의 한 사찰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찰에서 무허가 의료와 점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신심이 부족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도저히 제대로 된 스님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많았다.

이 사찰과 스님의 소속 종단을 알아보았더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ㅎ종단이었고, 그 스님은 그 종단의 총무원장이라고 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그 종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렵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 문의를 했지만 모르는 종단이라는 짧은 답을 들었을 뿐이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종단설립 인가증을 걸어놓은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 문화관광부에도 문의를 했지만 그런 종단은 등록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사찰은 종교를 팔아 무허가 인가증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 곳에서는 의료와 점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

김분희(인천시 남구 주안동)

청소년이 미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변하고 있다는 현대불교신문의 기사를 읽고 작은 희망을 느꼈다.

미래 인재양성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투자에는 인색했던 현실을 돌아보자. 청소년 법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찰이 흔치 않다. 주변에서 청소년법회를 여는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변화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생명력은 포교와 수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행은 내적기반을 다지는 일이지만, 포교는 불교계의 외연을 넓히고 불법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불사다. 포교가 수행의 다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포교는 어떤 계층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외면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조계종을 위시한 한국불교계가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포교종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찰에서도 청소년을 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윤성렬(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수련프로그램 다양화를

2001년부터 사찰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련회를 여는 사찰의 수가 증가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발빠른 대응을 해 온 점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사찰의 수련회 가운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수련회를 택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일정과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살핀다. 그래서 실제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은 몇 곳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 50개의 사찰에서 수련회가 열린다고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찰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과 일정을 정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련회는 불자나 일반인들이 불교와 사찰, 스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보다 더 좋은 포교방법도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련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불교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선모(경기 파주시 교하읍)

‘현대’ 만평 심 민 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9114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

중국 오대산 성지 순례 4일 ······ 599,000원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응현목탑, 현공사등 성지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9월 4일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출발일 : 8월 10일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 (천불동)-우루무치

■ 티벳, 네팔 일주 12일 ······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출발일 : 8월 3일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